

우노 지요의 생활과 문학

- 초기 작품 「지분의 얼굴(脂粉の顔)」을 중심으로 -

이상복*
sblee@syu.ac.kr

<目次>

- | | |
|---------------|---------------------|
| 1. 서론 | 3. 지요에게 있어서의 화장의 표상 |
| 2. 지요의 삿포로 시대 | 4. 결론 |

主題語: 화장(make-up), 삿포로(Sapporo,), 여성작가(female authors), 문학(literature), 엔쿠라켄(enkuraken) 초기작품(early works)

1. 서론

우노 지요(宇野千代, 이하 “지요”로 칭함)는 여성작가로서는 보기 드물게 60여년(1920년-1990년대) 동안 작품 활동을 계속하였으며, 인간의 행복 추구라는 테마로 일본 여성문학사의 새로운 분야를 제시하였다. 이와야 다이시(嚴谷大四)는 “일본의 여성작가 대부분은 작품속의 히로인을 통해 여성으로서 고통 받은 것에 대한 분노와 대항의식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요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가지는 여성”²⁾이라고 평하고 있다. 그 정도로 지요는 자신의 한계와 절망을 남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여 행복으로 승화시키며, 스스로 터득한 행복 추구 방법을 작품으로도 많이 남겼다. 그 뿐 아니라, 출판사와 일본 최초의 기모노회사를 설립하고, 잡지 『스타일』을 창간(1936년)하기도 하였다.

*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교수

- 1) 宇野千代(1897년11월28일-1996년6월10일)는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山口県岩国市) 출신으로, 부친 우노 순지(宇野俊次)와 모친 도요(トヨ)의 장녀로 태어났다. 우노 가문은 대대로 양주조업을 경영하는 자산가였으나, 지요 부친의 방탕한 생활로 경제적으로 아주 빈곤해졌다. 게다가 지요는 부친의 재혼(지요 3세 때 생모 사망)으로 남동생(4명)과 여동생(1명)까지 책임지는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 2) 嚴谷大四(1977)「昭和女流文壇の開化」『物語女流文壇史』下、中央公論社、p.42

이런 우노 지요가 초기작 「지분의 얼굴(脂粉の顔)」을 발표하기 까지의 생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본다. 지요는 14세 어린나이에 부모의 뜻에 따라 계모(リュウ)의 언니 아들 후지무라 료이치(藤村亮一)와 결혼을 전제로 생활(1911년)하지만, 10일 만에 다시 돌아온다. 그 후, 이와쿠니 고등여학교(岩国高等女学校)를 졸업(1914년)하고, 가와카미 촌립(川上村立) 초등학교의 대용 교원으로 근무한다. 얼마 되지 않아 동료와의 스캔들로 퇴직(1915년)당하여 조선 경성으로 간다. 다시 귀국한 지요가 이번에는 교토에서 료이치의 동생 후지무라 다다시(藤村忠)와 동거를 시작한다. (1916년, 1919년 정식으로 결혼)

다다시의 동경제국대학 입학(1917년)으로 함께 동경으로 상경한 지요는 학생인 다다시를 대신하여 돈을 벌어야만 했다.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다가, 엔리쿠켄(燕楽軒)³⁾에서 여급으로 18일간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다 다다시가 대학 졸업(1920년)과 동시에 훗카이도 척삭은행(拓殖銀行) 본점에 취업함으로써 부부는 삿포로⁴⁾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때 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작품 활동을 하면서, 「시사신보(時事新報)」의 현상소설에 후지무라 지요(藤村千代)라는 이름으로 응모한 「지분의 얼굴(脂粉の顔)」이 1등으로 당선되었다⁵⁾.

이 「지분의 얼굴(脂粉の顔)」에 대해, 하야시 마루시(林円)는 여주인공 오스미가 “피부와 일체화 되어 맨얼굴과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화장을 하고 있는 아가씨의 요염함에 패배하는 이야기”로, 지요는 아직 화장한 얼굴에 대한 “위화감과 이중성이라는 부정적인 관념을 버리고 못하고 있다⁶⁾”고 적고 있다. 간노 쓰토메(神埜努)는 “지요 자신의 가난했던 동경에서의 여러가지 생활에서 소재를 취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남자에게 선택 받은 여자 내면의 움직임에 쫓아가는 리얼리티⁷⁾가 돋보인다고 평하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여주인공 오스미와 지요를 동일선상에 놓고, 지요의 짙은 화장으로 커버될 수 없는 내부의 열등감과 카페 여급생활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평으로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카페여급 오스미의 짙은 화장 속에 가려진

3) 엔리쿠켄(燕楽軒):혼고 산초메 교차점 가까이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건너편에 중앙 공론사가 있어 『중앙공론』의 유명한 편집장 다키타 조잉(瀧田標陰),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구메 마사오(久米正雄), 곤토 고(今東光) 등도 자주 드나들어 문단인의 사교장이 되었다. 이때 우노 지요(20세)가 18일 동안 그곳에서 여급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서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4) 본 논문에는 주요 지역명 東京, 北海道, 札幌 등이 나온다. 이들 명칭을 통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에서 많이 불리고 있는 이름으로 표기한다. 東京은 동경으로, 그러나 札幌은 ‘찰황’이 아닌 삿포로로 표현하고 있다. 北海道는 북해도나 훗카이도로 불리고 있지만, 삿포로가 소속되어 있는 도(道에) 속하므로 편의상 여기서는 훗카이도로 표기하기로 한다.

5) 1등은 우노 지요의 『지분의 얼굴(脂粉の顔)』, 2등은 오자키 시로(尾崎士郎)의 『옥중에서(『獄中より』), 선외가작은 요코미쓰 리이치(横光利一)의 『오도리미(踊見)』였다.

6) 林円(2000)『宇野千代「脂粉の顔」論-化粧と素顔の間』『東洋大学大学院紀要』37, 東洋大学大学院, p.70

7) 神埜努(2000)『女流作家の誕生 宇野千代の札幌時代』共同文化史, p.154

의미를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지요가 평소에도 짙은 화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지분의 얼굴(脂粉の顔)」이 초기작품인 만큼 삿포로에서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조명해 나가기로 한다.

2. 지요의 삿포로 시대

지요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 부친을 대신하여, 이와쿠니 고등여학교를 졸업(1914년)한 후가와시타 무라(川下村)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가족들의 생활을 모두 책임지고 있었다.

65, 66년이나 지난 옛날일로, 그 당시 학교에서 받은 봉급은 이상할 만큼 적은 돈으로 겨우 8엔이었다. 그 8엔 중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잡비인 화장품과 신발을 사기 위한 1엔도 되지 않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어머니에게 건넸다. 지금까지 8엔이라는 돈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돈이 우리가족에 있어 전 수입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⁸⁾

이렇게 지요의 봉급 “8엔”이 전 가족의 수입이었다면, 그 생활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같은 학교 남자 동료 시노다(篠田)와의 연애 문제로 지요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때, 지요는 자포자기하여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가능한 한 먼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에 고등학교 은사를 의지하여 경성으로 간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 지요는 우노와 후지무라 양가 합의 아래 후지무라 다다시(藤村忠)와 교토에서 동거를 시작한다. 그 후 부부는 동경을 거쳐, 삿포로에서 생활하며 겨우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요는 처음으로 돈을 벌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남게 되자, 무슨 일이든 자신의 일을 하고 싶어졌다.

지금은 궁핍하고 돈이 없어 일하는 것이 아니다. 돈은 남편이 충분히 벌여온다. 나는 일하는 것이 재미있다. 돈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일하는 것은 더욱 재미있다. 나에게 있어 그것은 쾌락이었습니다!¹⁰⁾

8) 宇野千代(1987)「幸福への願望」『幸せを求めて生きる』海竜社、p.19
9) 宇野千代(1986)「ふだんの話」『しあはせな話』中央公論社、p.141
10) いまは、貧乏でお金がなくて働くのではない。お金はたっぷり良人が貰って来た。私は働くのが面白いので働くのだ。お金がたっぷり t とあつて、まだその上に働くことの面白さ。私にとっては、それは快樂でした。宇野千代(1978)「自傳的戀愛論」『宇野千代全集』12、中央公論社、p.80

지요는 제일 먼저 샴바느질을 시작했다. 그 당시 홋카이도에는 고생하여 ‘백만장자’가 된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어, 지요도 한때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도 한다.

다다시가 근무하는 홋카이도의 척식은행에 동료인 도쿠나가 지카히데(徳永親秀, 1901-1966)와 테구치 도요야스(出口農泰, 1890- ?)를 중심으로 10여명이 힘을 모아 1920년 「계명(啓明)」이라는 회람동인잡지를 직접 만들었다. 다다시와 지요도 창간멤버가 되었다. 「계명(啓明)」은 매월 20일까지 원고를 모아 25, 6일까지 분담하여 편집 작업을 마친 후 회원에게 회람할 수 있도록 했다.¹¹⁾

지요가 「계명(啓明)」의 창간호에 「강의 흐름(川の流れ)」을 출고하고 제 2호에 작품을 투고할 즈음, 「시사신보」에서 단편소설을 현상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분의 얼굴(脂粉の顔)」을 투고한다. 이 「지분의 얼굴」의 선자(選者)였던 구메 마사오(久米正雄)와 사토미 돈(里見淳)은 다음과 같은 선포(1921년 1월21일)을 하고 있다.¹²⁾

사토미 돈(里見淳)는,

「지분의 얼굴」은 그 중에서 가장 소설다운 소설입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조금은 참신함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메 마사오(久米正雄)는,

솔직하게 말하면 일등 200엔을 기쁘게 수여할 만한 마음에 드는 작품은 하나도 없었다. 후지무라 지요씨의 「지분의 얼굴」도 전람회용의 그림과 같이 조금 번쩍거리는 기교만 부린 느낌을 금할 수 없지만, 어쨌든 눈에 띄었고 소재도 흥미롭다. 단지 저것이 화장 탓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지 말고, 어느 여자 심정의 열등감만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발 된 「지분의 얼굴」의 현상금으로 200엔을 받았다. 그 당시 “은행원의 초임금이 50엔이었던 시대에 남편 급료의 몇 배에 해당하는 거금”¹³⁾을 그녀는 한 번에 손에 넣게 된 것이다.

일등당선의 기쁨보다 그때의 많은 상금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소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돈이

11) 神埜努、上掲書、p.151

12) 再引用、林円(2000)「宇野千代「脂粉の顔」論-化粧と素顔の間」『東洋大学大学院紀要』37、東洋大学大学院、p.59

13) 林円、上掲書、p.58

되는 것일까.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언제나 빈곤했던 나는 그때 돈을 벌기 위해서, 앞으로도 소설을 쓰려고 결심한 것입니다.¹⁴⁾

지요는 상금을 받은 후, 돈을 벌려면 소설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다. 제일 먼저 무작정 엔라쿠젠(燕楽軒)에서 근무할 때 지요에서 50전을 팁으로 주었던 다키타 조잉(瀧田樗陰)을 생각해내고, 그에게 소설을 써서 보낸다. 그때만 해도 지요는 “『중앙공론』이라는 잡지”와 “편집장 다키타 조잉”의 위상을 잘 알지 못했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난 당시의 유행작가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었는지, 또 그들이 쓴 소설을 읽고 있는 『중앙공론』이라는 잡지가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또 그 생살여탈(生殺與奪)의 권리를 쥐고 있는 다키타 조잉(瀧田樗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조금도 몰랐습니다.¹⁵⁾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중앙공론』에 글이 실리기만 하면 작가로서 대성할 수 있다는 것과 다키타 조잉이라는 사람의 유명세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지요는 더욱 더 편집장 다키타 조잉 앞으로 보낸 「무덤을 파헤치다(墓を暴く)」에 대한 결과가 궁금해졌다. 그러나 연락이 오지 않자, 지요는 동경으로 가서 직접 출판사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때 기차역까지 마중 나온 남편 다다시에게 지요는 “바로 돌아 올 테니까 저녁밥은 회사의 식당”에서 해결하라는 말을 남기고, 길어도 “3일에서 5일”¹⁶⁾ 정도면 충분히 돌아 올 작정이었다.

『중앙공론』에 소설이 실린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이일로 백만장자가 되는 날이 가까워지겠지요. 잠깐 중앙공론사로 가보는 것도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한 처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¹⁷⁾

14) 一等当選の喜びも増して、その時の多額な償金は、私を吃驚させたのです。小説とはこんなにお金の儲かるものか。さう私が思ったとしても、無理はありませんでした。いつでも貧乏であった私は、そのときに、金を儲けるために、これからも小説を書かうと思ひ詰めたからなのです。宇野千代(1972)『私の文學的回想記』中央公論社、p.18

15) 私が生まれて初めて会った当時の流行作家たちが、どんなに偉い人たちであったのか、また、それらの人たちの書いた小説をのせてある「中央公論」と言ふ雑誌が、どんなに権威のあるものであったのか、また、その生殺與奪の権利を握ってある瀧田樗陰自分がどんな人であったのか、私は少しも知りませんでした。宇野千代(1972)「原稿料三百九十円」『私の文學的回想記』中央公論社、p.19

16) 宇野千代(1978)『自傳的戀愛論』『宇野千代全集』12、中央公論社、p.86

17) 「中央公論」に小説がのると言うことは、私にとって、一大事件でした。たぶん、これで百万長者になる日も近いことでしょう。ちょっと中央公論社に行つて来るのも、百万長者になるためには、絶対に必要な処置だと思われました。宇野千代(1978)『自傳的戀愛論』『宇野千代全集』12、中央公論社、p.86

지요는 동경에 도착하여 바로 중앙공론사로 가서 다키타 조잉을 만났다. 그때서야 지요의 작품이 『중앙공론』에 게재된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원고료를 받게 된다.

“이것이 당신의 원고료입니다”라며 획 소리가 날 정도로 부피가 큰 돈다발,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한 장에 3엔으로, 366엔이라는 거금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18)

그 돈을 받아 바로 삿포로로 돌아가려고 했던 지요는 이와쿠니에 있는 집에 들러 어머니에게 원고료로 받은 돈의 일부를 건넸다. 그리고는 다시 삿포로로 돌아가는 도중에 앞으로의 일에 대한 협의와 감사의 답례도 할 겸 중앙공론사로 갔다. 그곳에서 오자키 시로(尾崎士郎)¹⁹⁾를 만난다. 그때 지요는 마음이 변하여 삿포로로 돌아가지 않고 동경에서 오자키 시로와 함께 생활하게 된다. 지요가 오자키 시로와 함께 살 집을 짓고 있을 즈음에 다다시가 보낸 “내일 밤 8시 우에노 도착”이라는 전보를 받는다.²⁰⁾ 두 사람은 동경에서 만나게 되지만, 결국 다다시 혼자 삿포로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일 년이 지난 1924년 4월 지요는 다다시와 협의이혼하고 오자키 시로와 정식 결혼을 하게 된다.

오자키(尾崎)와 지요는 마고메무라(馬込村)²¹⁾에서 문단활동을 계속하며 다른 작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가졌지만, 그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다. 오자키가 애인이 생겨 집을 나가 버린 것이다. 지요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한동안 아주 힘든 세월을 보낸다. 그 후 지요는 다양한 남성편력으로 결혼과 이혼을 거듭하였다.

이런 생활을 거듭하면서도 오랫동안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하였던 지요는 스스로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결정은 무엇이 돈이 되는 가”에 따라 달랐으며, “문학에 확고한 목적”을 가지게 된 것은 “60세가 넘어서”²²⁾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지요는 말년에, 삿포로에서의 다다시와의 결혼생활을 뒤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홋카이도에서 살았던 1년 8개월의 결혼생활만큼 나에게 있어 희망 찬

18) 「これがあなたの原稿料です」どさっと音がするほどの量ばった札束。忘れもしません。一枚三円の割りで、三百六十六円と言う大金が目の前に置かれました。宇野千代(1978)『自傳的戀愛論』『宇野千代全集』12、中央公論社、p.88

19) 오자키 시로(尾崎士郎, 1898년2월5일-1964년2월19일); 1921년에 「시사신보」의 현상소설에 『옥중에서(獄中より)』가 제2위로 입선되어 본격적으로 소설가로서 활약하게 됨.

20) 宇野千代(1978)『自傳的戀愛論』상계서、p.94

21) 마고메무라(馬込村)는 쇼와(昭和) 초기 때부터 오자키 시로(尾崎士郎)와 우노 지요(宇野千代) 부부를 중심으로 많은 문사들이 마고메에서 교류를 가지게 됨으로써, 소위 문사마을이 형성되게 되었다. 지금도 “마고메분시무라(馬込文士村)”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다.

22) 宇野千代(1972)『幸運のパターン』『私の文學的回想記』中央公論社、p.23

생활은 없었습니다. 그 동안의 생활은 나에게 있어 단지 한 번의 규칙 바른 서민의 생활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²³⁾

그뿐만 아니라, 지요는 젊은 날에 다다시와 같은 사람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며, 다다시가 평소 자신의 의사를 존중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19세나 20세의 혼미에 빠지기 쉬운 연령에 어떻게 이런 남성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스스로의 본능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완전히 본능에 의해 선택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무엇이든 자기주장을 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에게만 보이는 무수한 아름다움을 발견했던 것입니다.²⁴⁾

지요는 다다시의 외모가 그다지 눈에 띄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매력과 재능이 있는 남자였다고 회상하고 있다. 이렇게 지요에게 있어 샷포르는 작가적 출발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일생에 단 한번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했던 곳이기도 하다.

3. 지요에게 있어서의 화장의 표상

「지분의 얼굴」에는 남자 한명을 사이에 두고 두 명의 여자가 등장한다. 이렇게 “여성 두 사람과 남성 한 사람이라는 구성은 지요가 좋아하는 인물 관계이다.”²⁵⁾ 이 작품의 남자 주인공 스위스인 후퍼는 카페 손님이었다. 주인공이 일본인이 아닌 “스위스인인 것은 ‘하이칼라’로 신선함의 역할로써 기대되고 있다.”²⁶⁾ 즉, 부연 설명 없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남자로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주인공 오스미의 직업이 카페여급인 것은 지요가 동경에 있을 때 “엔라쿠

23) いまから考えますと、北海道にいた一年八ヵ月の結婚生活くらい、私にとって希望にみちた生活はありませんでした。この間の生活は、私にとってたった一度の、規則正しい庶民の生活であったともあ言えると思います。宇野千代(1978)「自傳的戀愛論」『宇野千代全集』12、中央公論社、p.79

24) 十九や二十の、あの混迷に陥り易い年齢で、どうしてこう云う男性を選ぶことが出来たか、自分で自分の本能に驚嘆せぜにはいられません。そう、全く本能によって選んだ、と言うほかはないのです。私にはその人の、何にも自己を主張しない態度の中に、私にだけ見える数々の美しさを発見したのです。宇野千代(1978)「自傳的戀愛論」『宇野千代全集』12、中央公論社、p.75

25) 林円、上掲書、p.61

26) 前掲書、p.65

켄(燕樂軒)에서의 경험을 기본²⁷⁾으로 한 것이다. 후퍼는 오스미에게 “한 달에 얼마 정도” 필요하냐고 물었다. 이에 오스미가 “60엔”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자, 다음날 후퍼는 아무 조건 없이 “60엔”을 오스미에게 전달한다, 오스미는 영겁결에 돈을 받았지만 왜 후퍼가 자신에게 돈을 준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오스미는 후퍼가 돈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라 자신의 처지가 곤란해 보여 주었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마음이 끌려 준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지면서도 아무튼 당장 후처라도 되어 달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돈에 염담한 것인지, 자신에게 마음이 끌렸는지, 아니면 일종의 수단인지, 오스미는 저녁에 이불 속에서도 도저히 이해 할 수없는 이방인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여하간에 돈 육십엔을 주신 것은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내일부터 카페를 그만둔다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다고 그대로 후퍼의 첩이 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어쨌든 명분이 확실하지 않는 애매한 처지에 놓이기는 했지만, 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다고 생각했다.²⁸⁾

이렇게 후퍼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는 오스미에게 경마장에 함께 가자는 연락이 왔다. 오스미는 후퍼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가장 아끼는 옷에다, 예뻐 보이려고 짙은 화장을 하고 나갔다. 그런데 후퍼는 혼자가 아니었다. 여자 동행이 있었으므로 셋이서 함께 경마장으로 향했다.

세 사람이 보기(bogie) 전철을 타고 한 쪽으로 쪽 이어 앉은 모양새는 참으로 묘한 조합이었다. 가운데 낀 후퍼는 그렇다 치고도 좌우의 여자들은 아주 이상했다.²⁹⁾

오스미는 다른 여자 동행이 있다는 것도 불편한데, 그 여자는 자신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름다웠다. 게다가 남자들에게 애교를 부리며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그 오스미는 같은 여자로서 질투심을 느꼈다. 무엇보다 후퍼가 그 여자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 같아 불안하

27) 前掲書、p.62

28) 「지분의 얼굴(脂粉の顔)」의 본문인용은 『宇野千代全集』第一卷(中央公論社、1977)에 따름 이하 동일
金錢に活淡なのか、自分に心を惹かされたのか、それとも一種の術なのか、お澄は夜、床の中へ入ってから、会体の知れない異邦人の胸を割って見度いと思っただが、兎に角、纏った金の六十円は有り難い事に違いなかった。明日からカフェを止すのは無論の事だが、さりとしてこの儘パパーの妾にせられるのでも無さそうだし、何しろはっきりした条件のない曖昧な境遇に置かれると言うだけで遊んで暮せるのは実に好い、と思っただ。(「脂粉の顔」p.8)

29) 三人がボギー電車に乗って一側にずらりと列んで腰を下した具合いは、実に妙な取合せであった。真中に挟まれたパパーは好いとしても、左右の女同志は全く変であった。(「脂粉の顔」p.9)

기조차 했다.

부드러운 얇은 기모노가 자그마한 골격에 모양 좋게 부풀어 오른 육체 위로 착 달라 붙은 듯한 모습은 아무 기교도 부리지 않았지만,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잘 어울렸다. 나긋나긋하게 후퍼에게 달라붙어 약간 허끝의 달콤한 목소리로 끊임없이 수다를 떨고 있는 아가씨와 비교하여, 오스미는 카페의 가스불빛 아래에서는 어떻게든 속여서 새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치리멘 단의 앞섰과 가랑이 주변이 조금씩 땀에 젖어 염색 무늬처럼 보이는 자신의 옷차림에 치명적인 열등감을 느꼈다.

그 옷차림으로 인한 열등감을 얼굴로라도 커버할 작정으로 한 화장이 아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짙은 화장으로 활짝 핀 목단과 같은 얼굴이 오히려 당황해 하고 있었다.³⁰⁾

오스미는 그 여자가 아주 잘 어울리는 세련된 복장을 하고 있는 것도 신경 쓰였다. 오스미는 가스불빛 아래에서는 자신의 낡은 옷을 새 옷처럼 보일 수 있도록 가장할 수도 있었지만, 밝은 경마장에서는 낡은 옷에 땀이 베이자 마치 염색을 한 것처럼 무늬가 되어 나타나 당황스러웠다.

게다가 지금까지 남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온 자신의 짙은 화장도 그 여자의 열은 화장으로 잘 어울리는 얼굴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러자 오스미는 스스로 별거벗겨진 것 같아 더욱 열등의식에 사로 잡혔다. 그 아름다운 여자 앞에서는 평소에 잘 어울리던 짙은 화장도 한계를 드러내며 “치명적인 열등감”³¹⁾만 느꼈다.

오스미의 감정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지요가 화장을 함으로써 느끼는 우월감을 살펴본다. 지요는 “아침부터 밤까지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욕구로 가득 차 있다”(『自傳的戀愛論』p.62)였으며, 매일 “화장을 하고 가장 좋아하는 기모노를 입고 거리로 나갑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에 최초의 거리에서 새로운 애인을 만난다”(『自傳的戀愛論』p.71)고 할 정도로 외모에 자신이 있었다. 이런 지요의 자존심이기도 했던 짙은 화장이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하고 무참히 무너져 버린 예를 그리고 있다.

이런 지요가 화장을 시작한 것은, 16세 추석 때부터였다. 처음으로 화장을 하게 된 장면을

30) なよやかな羅の着物を、小さい骨組の形よく盛り上った肉の上にべったりと吸い附いたよう具合に無雑作にだが一分の隙もなく着こなして、しなしなとフバーへ寄り添って、少し巻舌の甘い声音で節間なくしゃべって居る娘に較べて、お澄はカフェの瓦斯の光りの下では何うか斯うか誤魔化しの利いた新お召の單衣の、背負揚げの處や小股の辺りが少々汗染みて染色の斑らでさえある自分の身態に致命的のひけ目を感じた。その身態でのひけ目を顔でも償いたい積りの化粧が大分薬が利きすぎてぱっと開いた濃い脂粉の牡丹の花の様な顔が首から上で戸惑って居た。(『脂粉の顔』pp.9-10)

31) 林円、上掲書、p.60

인용문에서 살펴본다.

저녁에 나는 목욕탕에 있었다. (중략) 거울 속의 자신을 보았다. 언제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어머니의 오래된 화장분이 있었다. 나는 솔을 들고 무의식적으로 분을 얼굴에 발랐다. 기적이 일어났다. 거울 속에는 선녀처럼 아름답고 귀여운 아가씨의 얼굴이 비쳤다. 화장이라고 할 만하다. 저 검은 피부의 아가씨가 분을 바르는 것만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귀엽게 되는 것인가. 그 밤부터 나의 슬픈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화장으로 절세미인이 되었다.³²⁾

지요는 화장을 하고 난 후부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애편지가 왔다”며, 스스로 “나의 이 얼굴은 가면”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어느 한 여자의 이야기(或る一人の女の話)」의 주인공 히토에가 작자 지요의 투영으로 그려져 있는 사소설³³⁾이므로 지요의 얼굴색을 히토에를 통해 살펴본다.

히토에의 얼굴색은 선천적으로 검었다. 어릴 시절 아버지로부터 ‘검둥이’로 불리었다. 그렇게 검은 피부를 신부로 받아 줄 사람이 있을까? 라고 말했다. 자신의 얼굴이 검은 것을 늘 보아오던 히토에의 눈에 분을 바른 얼굴이 어떤 변모를 꾀했는지. 히토에는 전율했다. 이것이 자신의 얼굴을 바탕으로 하여 변모한 것인가.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아가씨의 얼굴이 보였다. 단지 분을 발랐을 뿐인데 속과 겉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과 같이, 그렇게 변한 것은,³⁴⁾

지요는 화장을 곱게 하고 있으면 모든 남자들이 자신에게 마음이 끌린다고 생각했다. 지요는 대용교사시절 연애를 할 때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32) 夕方、私は風呂場にあった。(中略)鏡の中の自分の顔を見た。傍には、いつ使ったのか、母の古い白粉があった。私は刷毛をとって、無意識的に白粉を顔に塗った。奇跡が起きた。鏡の中には天女のように美しい、可愛らしい娘の顔が写っている。化粧とはよく言ったものだ。あの色黒娘が白粉を塗っただけで、こんなに美しく可愛くなれるのか。その夜から、私の悲しい人生が始まった。とも言える。私は化粧によって絶世の美人になった。

宇野千代(1978)『失戀上手』『宇野千代全集』10、中央公論社、p.134

33) 林円、上掲書、p.65

34) 一枝の顔の色は生れつき黒かった。子供の頃、父から「色黒」と呼ばれた。「そんなに色黒で、嫁に貰い手があるか」といわれた。自分の顔の黒いのを見馴れていた一枝の眼に、白粉を刷いた顔が、どんな変貌をしたのかいるかと話した。自分の顔が黒いものをいつも見てきた一重の目に塗った顔がどのような変貌を図ったのか。一重は身慄した。これが自分の顔をもとにして変貌したものか。それは思いも及ばない、この世のものとも思えない美しい娘の顔に見えた。ただ白粉を刷いただけで、裏と表をびっくり返したように、こんな変るとは。(「或る一人の女の話」p.47)

많은 남자들이 말을 걸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사람에게 답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젊고 어린 아가씨다. 그 공포에도 불구하고 한때 그들 중에 한사람에게 빠져 격한 연애를 하게 되었다. 사람을 사랑할 때, 저 얼굴의 공포는 어떻게 할 까. 사랑의 기쁨과는 상반되는 끊이지 않는 공포감이 늘 따라 다닌다. 이 얼굴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 그 공포감은 비유할 수가 없다.³⁵⁾

연애를 하면서도 항상 자신의 검은 피부색이 탄로 날까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화장만 하면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은 미모가 된다는 것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분의 얼굴」에서는 이 동행한 아가씨가 옅은 화장을 했음에도 화사하게 예뻐 보였으며 옷차림 또한 아름다웠다. 그뿐 만아니라 그 여자는 후퍼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교를 부리며 교태도 부렸다.

“어때요? 이 다람쥐 같은 사랑스런 아가씨가 저의 일행이요” 라고 말하고 싶은 듯이 옅은 미소를 띠우며, 아가씨의 주변 사람들을 계속 살피고 있던 후퍼가 어느 순간에 오스미와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황급히 시선을 돌렸지만, 그 얼핏 번뜩이는 눈빛에서 심기가 아주 불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너 따위 어디든 사라져 버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³⁶⁾

오스미는 후퍼에게 이미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날 후퍼 회사로 전화를 걸어 “어제는 매우 유쾌했습니다”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까지 잘 보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후퍼는 대답도 거의 하지 않았다. 오스미는 그때서야 후퍼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저녁 속달로,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너무 빨리 후퍼로부터 절교장이 왔다. 하지 만, 오스미는 그녀의 목단 꽃 같이 화장한 얼굴이 가을 대낮의 햇빛 아래에서 어느 정도까지 환멸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 끝까지 몰랐던 것이다. 그저, 육십 엔의 수당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부글부글 끓는

35) 多くの男性から言い寄られたにも拘らず、どの一人にも答えるのが恐しかった。しかし、若い稚い娘である。その恐怖にも拘らず、或るとき、それらの一人に夢中になり、激しい恋のとりになった。人を愛したとき、あのお面の恐怖はどうなるか。恋い嬉しさとは裏腹に、絶えず恐しさがつきまとよ。このお面がとれたら、と思うと、恐しさは嘘えようがなかった。宇野千代(1978)「失戀上手」『宇野千代全集』10、中央公論社、p.134

36) 「如何です?このリスのような娘の可愛らしい事は、私の連れですぜ。」とでも言い度そうな柔かい微笑を含んで、娘の辺りの人達に絶えず眼を配って居たフパーが如何かした拍子にお澄と顔を合わせでもすると、あわてて眼を反らすのであったが、そのちらと閃く眼光には見逃せない気難しさがあつた。(お前なぞ、何処へでも消えてなくなって呉れ)とでも言つて居るようであつた。(「脂粉の顔」p.12)

술지게미 같은 것이 가슴 속에 쌓여서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았다.³⁷⁾

아니나 다를까 후퍼에게서 절교장이 온 것이다. 그러나 오스미가 가장 신경 쓰이는 돈 60엔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 그 돈을 받을 때만 해도 오스미는 어떤 목적이 있던 당장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기뻐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확연하게 들어나지 않는 무언가로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오스미는 끝내 자신의 화장한 얼굴이 “가을 대낮의 햇빛 아래에서 어느 정도까지 환멸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 만큼 오스미에게 있어 화장은 절대적이었으므로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것이다.

지요는 70세가 넘어서야 얼굴색이 검다고 짙은 화장으로만 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나와 같은 얼굴색이 검은 딸이 있다면, 꼭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는 얼굴 피부는 검지만 자주 거울을 보렴, 어머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매력이 있어요.”³⁸⁾

이렇게 지요는 첫 작품에서부터 카페여급과 짙은 화장을 테마로 할 만큼 자신의 힘들었던 생활과 피부색에 대해 계속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지요가 70세가 지나서야 스스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이와 같이, 우노 지요가 검은 피부색을 감추기 위해 시작한 짙은 화장과 가장 불우할 때 경험했던 카페여급 생활을 소재로 한 초기작품 「지분의 얼굴」을 분석해 보았다.

지요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가장 역할을 해 오면서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그녀에게 큰 변화를 가져 온 것은 소설을 쓰는 것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다.

37) その夕方、又速達で、豫期しては居たが、余りに早過ぎるフバーからの絶交状が来た。が、お澄には彼女の牡丹の花お様な脂粉の顔が、秋の真昼間の白光の下で何の程度迄の幻滅を感じさせるものか、最後まで解らないのであった。只、六十円の手當でも償いのつかない、或むしやくしゃした槽が胸の中へ溜って何時までも取れなかった。(「脂粉の顔」p.13)

38) 私が私と同じ色黒の娘を持ったとしたら、きっとこう言うことだろうから。「お前は色黒だけど、よく鏡を見てごらん。ほら、ちっともおかしくはないよ。却って魅力があるよ。」
宇野千代(1978)『失戀上手』『宇野千代全集』10、中央公論社、p.134

지요는 스스로도 돈을 벌기 위한 작품을 계속 써 오다가 60세가 지나서야 문학이라는 진진성에 입각한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고 적고 있을 정도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지요 문학은 삿포로에서 시작된다. 삿포로에서 다다시와 생활하면서 『시사 신보』에 응모한 「지분의 얼굴」의 현상금을 받고 난후부터 돈을 벌기 위한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이어 「무덤을 파헤치다(墓を暴く)」의 많은 원고료까지 받고서는 삿포로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동경에서 작가 활동을 한다.

「지분의 얼굴」에는 지요가 동경에서 경험한 카페여급의 생활을 여주인공 오스미를 통해 그려내고 있다. 오스미는 카페 손님 스위스인 후퍼에게 60엔을 받았지만 그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 단지 오스미는 후퍼가 자신에게 마음이 끌려서 주는 돈인지 모르지만, 당장 후처가 되어 달라는 것이 아니므로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유 없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는 마음이 복잡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경마장에 함께 가자는 연락을 받고서 오스미는 후퍼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 나름 잔뜩 멋을 부리고 나갔다. 후퍼는 혼자가 아니었다. 열은 화장이 잘 어울리는 아가씨와 함께 나왔다. 그 아가씨가 남자들의 기분을 맞추려 노력하는 모습에 반한 후퍼는 오스미와 직접 눈이 마주치는 것조차 꺼려할 정도였다.

오스미도 세련미가 넘치는 아가씨의 옷차림과 한낮의 햇빛아래 낡음이 그대로 드러난 자신의 낡은 기모노가 비교되어 열등감에 빠져 들었다. 게다가 자신의 검은 피부를 가리는 짙은 화장만이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 생각했는데, 열은 화장이 잘 어울리는 그 아가씨를 보며 한때 자신감을 잃었다. 그러나 후퍼로부터 절교장을 받은 오스미는 자신의 화장이 왜 “환멸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는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짙은 화장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실제로 지요는 어릴 적부터 검은 피부를 가리기 위해 화장을 하고, 그 화장이 점점 짙어져 항상 자신의 가려진 얼굴 뒤에 숨겨진 얼굴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나 화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70세가 지나서야 비로소 검은 피부에서 스스로 해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지요의 초기 작품인 「지분의 얼굴」에서는 지요의 피부색에서 오는 열등감과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지난날을 오스미를 통해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퍼가 왜 돈을 건넸는지는 짐작으로 알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명백하지 않으며 절교장이 온 후에도 돈을 돌려주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무엇보다 가난한 카페여급 오스미는 60엔 보다 더 큰 수치감과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당장 돈이 더 필요하다는 생활에서 오는 절실함도 함께 그리고 있다.

【參考文獻】

- 板垣直子(1969)「宇野千代」『明治・大正・昭和の女流文学』桜楓社、pp.177-194
宇野千代(1986)「ふだんの話」『しあはせな話』中央公論社、pp.139-174
_____ (1983)「或る一人の女の話」『宇野千代全集』제7권、中央公論社、pp.5-146
_____ (1978)「失戀上手」『宇野千代全集』10、中央公論社、pp.125-139
_____ (1978)「自傳的戀愛論」『宇野千代全集』12、中央公論社、pp.80-86
_____ (1972)「原稿料三百九十円」『私の文學的回想記』中央公論社、pp.18-21
_____ (1972)『私の文學的回想記』中央公論社、pp.1-192
荻久保泰幸(1979)「宇野千代」『國文學解釋と教材研究』24(4)、學燈社、pp.214-215
神埜努(2000)『女流作家の誕生 宇野千代の札幌時代』共同文化史、pp.1-257
三枝康高(1972)「近代女流作家の肖像 宇野千代」『解釋と感賞』37(3)、至文堂、pp.114-116
坂上博一(1973)「宇野千代」『女流文芸研究』南窓社、pp.149-163
芝野美奈代(2009)「宇野千代『脂粉の顔』論」『国文鶴見』(43)、鶴見大学日本文学会、pp.41-49
瀬戸内寂聴(1996)『わたしの宇野千代』中央公論社、pp.1-270
林円(2000)「宇野千代『脂粉の顔』論化粧と素顔の間」『東洋大学大学院紀要』37、東洋大学大学院、pp.57-72

논문투고일 : 2016년 09월 27일
심사개시일 : 2016년 10월 18일
1차 수정일 : 2016년 11월 10일
2차 수정일 : 2016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6년 11월 15일

〈**요약**〉

우노 지요의 생활과 문학

- 초기 작품 『지분의 얼굴(脂粉の顔)』을 중심으로 -

이상복

지요는 남편 다다시와 함께 삿포로에서 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작품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다가 「시사신보(時事新報)」의 현상소설에 응모한 『지분의 얼굴(脂粉の顔)』이 1등으로 당선되어 200엔의 현상금을 받는다. 이를 계기로 어린시절부터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지요는 소설을 쓰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 작가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 이 초기 작품 『지분의 얼굴』은 남편의 학업을 돕기 위해 지요가 18일간 엔라쿠켄(燕楽軒)에서 여급으로 일한 경험과 검은 피부색에서 오는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생활을 모델로 하고 있다.

지요를 대변하는 여주인공 오스미는 남루한 기모노가 가스불빛에 새 옷처럼 보이도록 포장하고 목단과 같은 화려한 화장으로 남자들의 비호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에게 돈을 주었던 후퍼가 세련된 옷차림에 열린 화장이 잘 어울리는 아가씨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을 보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한다. 끝내 후퍼로부터 절교장을 받지만, 왜 자신의 짙은 화장에 환멸을 느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화장만이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가난한 카페여급 오스미가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생활에서 오는 절실함도 함께 그리고 있다.

The life and literary works of Uno Jiyo

- Focusing on her early work “Sibunnokao” -

Lee, Sang-Bok

Jiyo starts her literary work in Sapporo with those who have an interest in literature along with her husband Tatashi. In the process, her early work “Sibunnokao” wins first place in a prize contest by the newspaper Jijishinbou and she receives prize money in the amount of 200 yen. Through this experience, Jiyo makes a decision to begin a career as an author with the hopes of earning a great deal of money, as she has lived in poverty since childhood.

Jiyo’s early work “Sibunnokao” is modeled after her life where she is never free from the inferiority complex she has attained from working as a barmaid in Enrakuken for 18 days to support her husband’s education, as well as her dark complexion.

Osumi, the female protagonist in the story who is symbolic of Jiyo, is under the protection of men as even her shabby kimono is made to look new in the gas flames and because of her splendid make-up that makes her look like a peony. But soon she discovers her wretched state after realizing that Hooper, who has been giving her money, is attracted to another young woman with sophisticated attire and thin make-up. Eventually, Hooper ends his relationship with Osumi. She still doesn’t understand the disenchantment Hooper had with her thick make-up and her belief that only make-up can enhance her beauty does not change. The work also portrays the desperate situation Osumi finds herself in as she tries to eke out a living with her mother as a poor cafe maid.